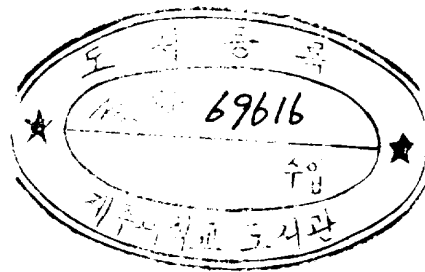


碩士學位 請求論文

*Macbeth*에 나타난 人間 本性和 歷史의 悲劇性

指導教授 卞 鐘 民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趙 晚 熙

1992年 8月

Macbeth에 나타난 人間 本性和 歷史의 悲劇性

指導教授 卞 鐘 民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2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提出者 趙 晚 熙



趙晚熙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2年 7月 日

審査委員長 梁 永 洙
審査委員 黃 彥 澤
審査委員 卞 鐘 民



목 차

초 록	1
I. 서 론	2
II. Macbeth에 대한 비평적 고찰	4
III. 인간 본성과 역사의 비극성	10
1. 인간 본성과 자유의지	10
2. Macbeth의 비극적 근원	16
3. 사회와 역사의 무질서	24
IV. 결 론	28
참고문헌	31
Abstract	33

초 록

본 논문에서는 William Shakespeare의 작품중 가장 심오하고 성숙된 악마의 구현이라는 비평을 받아온 *Macbeth*를 통하여 인간 본성과 역사의 비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주인공 *Macbeth*가 惡의 세계와 연루되어지는 과정은 그의 비극이 단지 마녀들의 유혹 또는 Lady *Macbeth*의 부추김과 같은 외적 유혹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Macbeth*의 내면에 있던 악한 세계의 발로이자, *Macbeth*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임을 보여준다.

*Macbeth*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선과 악의 문제, 그리고 사회와 역사의 도덕적질서에 대한 문제를 Shakespeare는 *Macbeth*를 통해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져야 하고, 인간의 역사의 진실은 선과 악이 구분되는 세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Macbeth*에서 다루어지는 비극적 본질은 선과 악이 혼용되어 내재되어 있는 인간 본성의 진실과, 항상 악한 세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나 악성에 그 바탕을 두고 있고, 인간의 본성이 악의 세계에 오염될 수 있는 한, 인간의 비극은 운명적인 것이며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와 역사의 무질서와 비극도 반복되리라는 것이 Shakespeare가 *Macbeth*에서 보여 주려는 궁극적인 주제라고 결론지었다.

I. 서론

William Shakespeare가 *Macbeth*를 집필한 것은 1605~1606년이며 최초의 공연도 같은 연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정이다. Shakespeare가 *Macbeth*를 집필할 당시의 영국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특히 헨리8세 당시의 영국과 로마 교황권과의 斷交는 당시 사회에 많은 갈등과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했다.

일반적으로 史劇이 당시의 혼란한 사회상이나 개개인의 굴절된 가치관을 그려냄으로써 체제의 정당성을 옹호한다든가 도덕적 질서를 계도한다는 목적극의 성격을 띠는다고 볼 때, 당시의 시대 상황을 왕위의 찬탈과 그 결과로 빚어지는 처참한 역사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Macbeth*의 내용은 Shakespeare가 자주 쓴 영국 사극과 비슷한 데가 있다. 그러나 Shakespeare가 사극에서와 같은 효과를 얻으려는 분명한 목적 의식하에 *Macbeth*를 집필했는 지에 대해서는 단언키 어려우며, 또한 15세기 영국역사를 그린 *Richard III*에 비교해 볼때 *Macbeth*가 다루고 있는 11세기의 스코트랜드 이야기가 얼마만큼 正史를 반영하고 있는지도 매우 모호하다. 예컨대 Shakespeare가 인용한 Holinshed의 원본에는 *Macbeth*가 10년을 통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실제 *Macbeth*에서는 극 진행에 따르는 시간경과가 명확치 않을뿐더러 사건의 진행 또한 매우 빨라 파국을 향해 돌진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 특색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Macbeth*가 사극이라기보다는 비극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주인공 *Macbeth*는 개전의 정이랴곤 한군데도 찾아볼 수 없는 악인이라, 비극적 주인공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Macbeth*는 인간의 권력에 대한 욕망과 그것으로 인한 惡의 형태를 그린

비극이다. 이 惡의 실체에 대해서는 *Macbeth*의 출판 이래 오늘에 이르기 까지 오랜 세월을 두고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인간의 지식으로는 규명하기 어려운 초인간적인 惡으로 인식될 만큼 그 비평적 해석이 다양하다. 보편적으로 연극에서 다루어지는 악의 상황은 주로 인간의 공포와 걱정을 불러 일으키는데 *Macbeth*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암흑과 밤이라는 imagery의 빈번한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 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암흑의 imagery는 불안과 공포를 부르는 惡을 상징하면서 全篇에 걸쳐 善을 상징하는 빛의 imagery와 명백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¹⁾ 이와 같은 선과 악의 대조 상황을 통해 작가는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독자로 하여금 무시무시한 공포감과 전율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분위기의 효과에 대하여 A.C. Bradley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A Shakespearean tragedy, as a rule, has a special tone or atmosphere of its own, quite perceptible, however difficult to describe. The effect of this atmosphere is marked with unusual strength in *Macbeth*.²⁾



암흑과 빛의 대조는 단지 물리적인 대조에 그치지 않고 *Macbeth*의 내면 세계에서 부단히 작용하고 있는 선과 악의 갈등을 암시해 주고 있다. *Macbeth*의 파멸 과정에 있어 주요인이 되고 있는 마녀들의 예언과 Lady *Macbeth*의 유혹을 *Macbeth*의 內面과 外面에 존재하고 있는 惡한 세계의 반영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저지하며 억제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바로 그의

1) A.C. Bradley(1964), *Shakespearean Tragedy*, Macmillan, p.279.

2) *Ibid*, p.278.

양심, 즉 그의 內面에 존재하고 있는 선한 세계의 발로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때 빛과 암흑 그리고 선과 악의 심각한 대립이야말로 비극적 효과를 한층 고양시키고 그 농도를 더욱 짙게 하여 관객으로 하여금 강력한 共感을 자아내게 한다. 인간의 본성에 바탕을 둔 선과 악의 대립 상황이 작품 전반의 배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Macbeth라는 한 인간의 영혼 내부에서 일어나는 선과 악의 갈등이 예술적 차원으로 승화되었다는 측면에서 Macbeth의 문학적 위대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본 논문은 Macbeth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상처받기 쉬운 인간 본성의 문제와 이로 인한 인간 사회와 역사의 비극적 무질서를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음 장에선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Macbeth에 관한 비평적 견해들을 고찰해 보고, 제 3장에서는 Macbeth에 나타난 인간 본성과 역사의 비극성을 주인공 Macbeth의 심성과 삶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II. Macbeth에 대한 비평적 고찰

Macbeth에 관한 비평의 역사를 살펴보면 연극 그 자체처럼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하다. Macbeth에 대해 지난 3세기 동안 쓰여진 비평의 주된 관점은 불확실한 마녀들의 존재, 자유의지의 문제, Duncan왕 살해의 동기, Macbeth의 근본적 善과 惡의 정체, Lady Macbeth의 역할, 'Porter Scene'의 상징적 의미, 그리고 비극적 영웅을 동정적으로 묘사한 Shakespeare의 기법(technic)등 참으로 다양하다. 이처럼 Macbeth에 대한 다양한 비평적 관점과 더불어 그 해석 또한 다양하기 이를 데 없다.³⁾

3) 이 후 소개되는 Macbeth에 대한 비평적 견해는 L.L.Harris & M.W. Scott.ed(1986), *Shakespearean Criticism*, Gale Research Company, 에서 발췌한 것이다.

Macbeth에 대해서 17세기와 18세기 비평은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교차된다. 예컨대, Samuel Pepys는 Macbeth를 “무대에 상연하기 가장 좋은 극중의 하나”라고 칭찬한다. 그 반면에 Charles Gildon은 Macbeth와 Lady Macbeth가 무대에 내놓기에는 너무나 괴물같은 존재들이라고 항변을 했고 훗날 Francis Gentleman도 이와 유사한 불평을 했다. Gentleman은 또한 Shakespeare가 마녀들을 작품속에 등장시킨 것을 비난했다. 그 이유는 마녀들이 청중들의 마음을 개선 진작시키기 보다는 미신적 믿음을 되풀이함으로써 이성을 약하게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Gentleman의 비난과는 반대로, 18세기의 다른 많은 비평가들은 Shakespeare가 마녀와 초자연적 존재들을 사용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Elizabeth Montagu는 극중에서 초자연적 존재들이 인간의 행위로는 성취할 수 없는 공포감을 조성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Arthur Murphy는 Shakespeare가 Macbeth에서 유령과 환영을 등장시킨 이유는 단지 죄의식 또는 공포에 떠는 마음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Macbeth에 대한 18세기 비평의 또 다른 관심은 Macbeth와 Lady Macbeth의 성격에 관한 것이었다. Gildon이나 Gentleman에 의한 부정적 비평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평가들은 이 두 인물들에게서 인간다운 특성을 인식했다. Montagu는 Lady Macbeth가 Duncan왕을 살해하지 못하고 Macbeth를 관대한 성질을 지닌 사람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녀에게 여성적인 특징이 있다고 보았으며, Samuel Johnson은 Lady Macbeth가 Macbeth로 하여금 Duncan왕을 살해하도록 설득하는 방법이 인간 본성에 대한 Shakespeare의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고 기술했다. 또한 Macbeth에 대한 동정적 견해는 Thomas Davies에 의해 강조되었다. Davies에 의하면 Macbeth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은 Macbeth의 용맹스러움때문이 아니라 처음에 살인을 감행

하기를 주저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난 후 그에 따르는 죄의식으로 고통받기 때문이라고 했다.

18세기말 경에 Thomas Whately는 Macbeth와 Richard Ⅲ를 비교하는 그의 글에서 Shakespeare가 창조한 인물에 대해 최초로 상당히 진보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Macbeth가 온화함과 소심함과 같은 인간성의 자질을 지니고 있으며 Macbeth가 Richard Ⅲ 보다 더 복잡하고 더할나위 없이 완벽한 인물이라고 기술했다. Whately는 또한 Macbeth가 자주 두려움과 우유부단함을 보인다고 기술했는데 이러한 관점은 19세기에 George Steevens와 John Philip Kemble에 의해 다시 논의 되어졌다. Steevens는 Macbeth가 처음에는 진정한 용기를 지니고 있었으나, Duncan왕을 살해한 후 용기와 덕망을 잃게되고 결과적으로 소심하고 불확실한 존재의 소유자로 전락되었다고 주장한다.

Macbeth에 나타나는 마녀들의 존재에 대한 관심은 19세기 동안에도 계속 되었는데 그 논점이 마녀란 존재 자체의 문제보다는 이들이 Macbeth에게 미친 영향의 정도에 모아졌다는 것이 특징이다. 18세기의 Whately와 Steevens가 Macbeth의 살인 행위는 마녀들에 의해 고무되어진 것이라고 주장한 것처럼 Charles Lamb도 마녀가 인간에게 나쁜 충동을 일으켰고 Macbeth의 운명을 흔들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ugust Wilhelm Schlegel에 따르면 마녀들은 자신들이 운명의 확고함(the solidity of fate)에 대한 예언능력을 지녔다고 Macbeth를 속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마녀들의 문제와 관련해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가 19세기 비평의 쟁점이 되었다. 많은 비평가들은 Macbeth가 자유의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마녀들이 그의 행동 방향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Franz Horn은 Macbeth의 비극은 운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유에 대한 신념

의 부족에서 비롯되고 그의 행동의 유일한 결정요인은 바로 그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G.G. Gervinus도 마녀들은 Macbeth의 내적 유혹의 구체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A.J.F. Mézzerès는 마녀들이 Macbeth에 대해 어떠한 외적인 영향도 끼치지 않고 단지 그로 하여금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던 왕의 살해라는 범죄를 저지르도록 자극할 뿐이라고 했다. 엄격한 기독교 미학을 연극에 적용시켰던 Herman Ulrici는 어떤 측면에서 볼 때 마녀들은 원초적인 순수에서부터 떨어져나간 인간의 영혼을 상징하며, 온 인류에게 퍼져있는 죄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세기를 거듭하면서 다양한 해석과 비평을 받아온 *Macbeth*는 Shakespeare의 소위 4대 비극중에서 가장 마지막 작품이자, 가장 짧은 작품이며⁴⁾ 너무 짧기 때문에 완성된 작품인지 아닌지 논란이 있었고 심지어 실패한 작품으로 간주하는 견해까지 있었다.⁵⁾ 그러나 *Macbeth*는 Wilson Knight가 지적하듯이 Shakespeare의 작품중 'most profound and mature vision of evil'⁶⁾로서 악의 세계를 가장 잘 구현한 작품이라고 평가되고 있고 또한 'a statement of evil'⁷⁾로서 묘사되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Kolbe의 경우에는 *Macbeth*와 Lady Macbeth의 영혼이 갈등하고 투쟁하는 보편적 전쟁의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⁸⁾ 그러나 D.A. Traversi가 *Macbeth*를 "... contains the decisive orientation of Shakespearean good and evil."⁹⁾ 이라고 평가하듯이 *Macbeth*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견해는 **善과 惡의 대립** 세

4) A.C. Bradley(1964), *Shakespearean Tragedy*, Macmillan p.277. (*Macbeth* 2509행, *Hamlet* 3897행)

5) G.B. Harrison(1951), *Shakespeare's Tragedies*, Routledge, pp.184~190.

6) G.Wilson Knight(1959), *The Wheel of Fire*, Methuen, p.140.

7) L.C. Knights(1963), *Explorations*, Chatto & Windus, p.18.

8) Kolbe, *Shakespeare's Way*, p.20.

9) D.A. Traversi, *Approach to Shakespeare*, p.86.

계에 그 촛점이 모아지고 있다.

Macbeth란 인물 자체에 대한 비평적 관점도 다양하기 그지 없어 Macbeth란 인물이 지니고 있는 신비의 정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이다.¹⁰ 예컨대 Muir는 Macbeth를 “반역과 범죄를 저지르는 고귀하며 뛰어난 인물로”¹¹ 평하고 있고 Arthur Symons는 “대담하지만 나약한 정신과 강건한 육체를 지닌 남자”¹²로 보고 있으며, 또한 “Schücking은 Macbeth을 신경과민의 희생자”로 보고 있다. 시각 및 청각적인 환각 때문에 고통받는 Macbeth를 보면 의심할 여지없이 그런 병적인 상태가 생겨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¹³ Adams에 따르면 Macbeth란 인물의 성격은 간단하여 그의 행동을 통제하는 두가지 주된 힘은 야망(ambition)과 양심(conscience)이다.¹⁴ L. B. Campbell은 Macbeth의 비극적 종말을 용기와 두려움이란 상호 모순적 갈등의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¹⁵ Bradley는 Macbeth를 대담한 야심을 지닌 행동하는 인간이자 시인의 상상력을 지닌 사색형의 인간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상력은 지극히 사소한 사건에도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때로는 육체와 정신 모두에 아주 격렬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¹⁶ 그러나 이처럼 작품이나 그 주인공에 관한 많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수용되어지는 바는 Macbeth가

- 10) Walter Clyde Curry(1968), *Shakespeare's Philosophical Patterns*, Peter Smith, pp.98~99.
- 11) Kenneth Muir, ed(1977), *Macbeth*, Methuen, introduction xiv.
- 12) Athur Symons(1971), *Studies in Elizabethan Drama*, AMS Press, p.28.
- 13) L.L. Schücking(1959), *Character Problems in Shakespeares Plays*, Peter Smith, p.77.
- 14) J.Q. Adams(1931), *Macbeth*, Houghton Mifflin, p.136.
- 15) L.B. Campbell(1963), “Shakespeare's Tragic Heroes”, *Slaves of Passion*, Barnes & Noble, p.238.
- 16) A.C. Bradley(1974), *Shakespearean Tragedy*, The Macmillan Press Ltd., p.295.

“Shakespeare의 가장 심오하며 성숙된 악마의 구현”¹⁷⁾이라는 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acbeth*에 대한 비평적 견해는 *Macbeth*의 세계가 선과 악의 실체를 구현한다는 것이며, 특히 주인공 *Macbeth*의 삶의 실체가 보여주는 악마적 특성에 대부분의 비평이 그 초점을 두고 있다. *Macbeth*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악의 세계는 그 동기가 *Macbeth*의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 둘다에 기인할 수 있고 또한 *Macbeth*의 성격적 결함에 기인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주로 *Macbeth*가 선과 악의 혼돈된 세계에서 악의 세계를 선택하게 되고, 이는 한 인간으로서 *Macbeth*가 지닌 자유 의지에 의한 선택의 결과이며, 이로 인한 인간 사회와 역사의 비극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17) G. Wilson Knight(1959), *The Wheel of Fire*, Methuen, p.141.

Ⅲ. 인간 본성과 역사의 비극성

A. 인간 본성과 자유 의지

주로 운명의 세 여신, 즉 세 마녀, 맥베스부부, 그리고 피와 무질서의 이 미지로 묘사되는 악의 세계를 고려해 볼 때 *Macbeth*는 분명히 악과 저주에 관한 극이다. Jan Kott는 “*Macbeth*는 살육으로 시작해서 살육으로 끝나며, 점점 더 많은 피가 흐르면 흐를수록 모든 사람이 그 핏속을 걷게 되고 그것은 무대밖으로 넘치게 된다”¹⁸⁾ 라고 쓰고 있다.

용맹스런 군인이며 Duncan왕의 혈족인 *Macbeth*는 그 자신의 내면적 야심과 그의 아내의 허황된 욕심에 의해 유혹을 받는다. 그리고 결국은 왕위 찬탈을 위해 정의로운 왕을 살해하고 만다. 그 이후로 그는 그가 저지른 최악의 목격자를 살해해야만 하고 심지어 그를 의심하는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게 된다. 따라서 이극의 주된 내용은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살인의 연속이며, 그 결과 극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이 악에 의해 가려져 있고, 차단되어 있으며, 제한받는 황폐하고 어두운 암흑의 세계”¹⁹⁾ 를 느끼게 된다. *Macbeth*의 죄는 너무나 강력하고 사악해서 온 사회와 온 나라가 그 최악때문에 흔들리게 된다. Duncan왕의 아들인 Donalbain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Macbeth*의 살인 행위가 불러 일으키게 될 혼란과 악의 보편성을 지적한다:

Where We are,
There's daggers in men's smiles: the near in blood,
The nearer bloody. (II. iii. 137-139)

18) John Kott(1970), *Shakespeare Our Contemporary*, Methuen, p.69.

19) Kinght(1959), *op. cit.*, p.141.

Macbeth의 사악한 죄는 조화로운 질서의 세계 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 자체까지 파멸시키게 된다. 물론 단순한 사건 중심으로 이 작품을 고려할 경우 Macbeth의 파멸은 마녀들의 사악한 유혹과 Lady Macbeth의 부도덕한 충동에 의해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Macbeth의 도덕적 질서의 붕괴는 어떤 외적인 힘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그의 의지로 선택한 결과라고 하겠다. 그가 마녀들로부터 처음으로 왕위에 대한 예언의 유혹을 받았을 때만 해도, 그는 그를 아는 모든 이들에 의해 대단히 존경받는 고상하고 품위 있는 사람으로 등장한다. 그는 그가 속한 사회의 옹호자이며 Scotland의 구원자로 소개된다. 국가를 위해 Macbeth와 함께 싸우다 부상당한 병사가 다음과 같이 Macbeth의 공적과 충성스러움을 Duncan왕에게 보고한다:

For brave Macbeth (well he deserves that name),
Disdaining Fortune, with his brandish'd steel,
Which smok'd with bloody execution,
Like Valour's minion, carv'd out his passage'
(I . ii . 16~19)

이에 Duncan왕은 "Valiant cousin! Worthy gentleman!"(I . ii . 24)라고 Macbeth를 인정하며 찬양한다. Wayne Booth는 Macbeth가 용맹스럽고 세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을만 하며 선천적으로 악인이 아님을 보여 주는 근거로서 Macbeth가 Duncan왕을 죽이기를 꺼려하는 다음 장면을 제시하고 있다.

- But in these cases,
We still have judgement here; that we but teach
Bloody instructions, which, being taught, return
To plague th'inventor: this even-handed Justice
Commends th'ingredience of our poison'd chalice
To our own lips. He's here in double trust:

First, as I am his kinsman and his subject,
 Strong both against the deed; then, as his host,
 Who should against his murderer shut the door,
 Not bear the knife myself. Besides, this Duncan
 Hath borne his faculties so meek, hath been
 So clear in his great office, that his virtues
 will plead like angels, trumpet-tongu'd, against
 The deep damnation of his taking-off;
 And Pity, like a naked new-born babe,
 Striding the blast, or heaven's Cherubins, hors'd
 Upon the sightless couriers of the air,
 Shall blow the horrid deed in every eye,
 That tears shall drown the wind. (I. vii. 7~25)

이처럼 처음에 Macbeth에 관한 언급들은 그를 고귀하고 존경받으며 영예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있으며 원래부터 사악한 존재가 아님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극의 끝장면에 이르러서 Macbeth는 "Hell-hound"(V. vii. 3), 또는 "a hotter name/Than any is in hell" (V. vii. 6-7)라고 일컬어지며 도처에서 증오의 대상이 되는 추악한 인물로 전락하게 된다.

물론 Macbeth가 악의 세계로 처음 빠지게 되는 것은 마녀들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마녀들의 예언이 아니라 Macbeth가 그 유혹을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마녀들의 유혹은 이해하고 판단하기에 달려 있다. 말하자면 Macbeth는 마녀들의 유혹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Duncan왕에 대항한 반란군을 물리치고 승리의 장군이 되어 귀환하는 Macbeth를 마녀들이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세 가지 다른 이름으로 그를 환영하며 맞이한다. 처음에는 Macbeth의 현 직위인 Glamis의 영주로, 둘째는 왕이 그에게 내린 칭호이지만 Macbeth는 아직 알지 못하는 Cawdor의 영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All hail, Macbeth! that shalt be king hereafter." (I. iii. 50)라고 예언하며 결정적인 유혹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마녀들의 예언은 단지 그가 왕이 될 수도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지 그가 현재의 Duncan왕을 죽이고 왕관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을 예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예언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Macbeth의 자유 의지에 달려있다. 말하자면 그 예언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evil에 대한 Milton의 견해를 검토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Evil into mind of God or Man
May come and go, so unapprov'd, and leave
No spot or blame behind:☞

Milton이 묘사한 바에 따르면 惡의 영향은 도처에서 항상 존재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에 따라 실행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Macbeth의 도덕적 질서의 세계가 붕괴된 것은 바로 그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Macbeth가 마녀의 예언을 듣고 정신적 동요를 일으키는 다음 장면은 그 근거를 제시해 준다고 하겠다:

This supernatural soliciting
Cannot be ill: cannot be good:-
If ill, why hath it given me earnest of success,
Commencing in a truth? I am Thane of Cawdor:
If good, why do I yield to that suggestion
Whose horrid image doth unfix my hair,
And make my seated heart knock at my ribs,

20) John Milton(1962), *Paradise Lost*, The Odyssey Press, p.116.

Against the use of nature? Present fears
Are less than horrible imaginings.
My thought, whose murder yet is but fantastical,
Shakes so my single state of man,
That function is smother'd in surmise,
And nothing is, but what is not. (I. iii. 130~142)

그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란 것에 대한 또 다른 증거는 Macbeth 혼자만이 마녀들로부터의 유혹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즉 그의 친구이며 동료 장군인 Banquo 또한 그가 비록 왕이 되지는 않지만 왕가의 선조가 되리라는 것을 예언 받는다:

Lesser than Macbeth, and greater.
Not so happy, yet much happier.
Thou shalt get kings, though thou be none:
(I. iii. 65~67)

이처럼 Macbeth와 Banquo는 둘 다, 전자는 그 자신이 후자는 그의 자손들이 왕이 된다는 내용의 왕권과 관련된 유혹을 받는다. 이에 Macbeth는 동요하며 “to catch the nearest way”(I. v. 16)라고 결심한다. 반면에 Banquo는 동요되지 않고 “the great hand of God”(II. iii. 130)에 맡기기로 결심한다. 처음으로 Cawdor의 영주라는 예언이 실현되었을 때 Macbeth와 Banquo의 반응은 상당히 다르다. Banquo는 즉각 “What! Can the Devil speak true?”(I. iii. 107)라고 외치며 마녀의 예언이 실현됨을 경계한다. 반면에 Macbeth는 마녀들이 자신을 Cawdor의 영주로 예언한 것이 실현된 데 고무되어 오히려 Banquo의 반응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Do you not hope your children shall be kings,

When those that gave the Thane of Cawdor to me
Promis'd no less to them?
(I . iii . 117~120)

Banquo는 예언의 실현에 고무된 Macbeth의 내면 세계를 간파하며 “That, trusted home, / Might yet enkindle you unto the crown, / Besides the Thane of Cawdor”(I . iii . 120~122) 라고 미래를 경고한다. 그러면서 그는 마녀들에 의해 놓아진 함정이 하게 될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But 'tis strange:
And oftentimes, to win us to our harm,
The instruments of Darkness tell us truths:
Win us with honest trifles, to betray's
In deepest consequence.
(I . iii , 122-126)

극의 끝부분에 이르러서야 Macbeth는 Banquo의 경고가 아주 정확했음을 알게 된다.

어떤 독자들은 Macbeth가 처음으로 마녀들을 만났을 때 왕을 살해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최악의 책임은 남편으로 하여금 왕을 살해하게 함으로써 왕위를 찬탈하도록 자극하고 몰아부친 Lady Macbeth에게 돌려져야 한다고 말할런지도 모른다. 물론 Macbeth는 바른 선택을 하려고 생각하고, 왕위에 대한 강한 자극을 거부하려 했던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그는 “If Chance will have me king, Why, Chance may crown me, / Without my stir.”(I . iii . 144-145) 또는 “We will speak further” (I . v . 71)라고 말하며 왕을 살해하라는 그의 아내의 제안을 따르기를 꺼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Bradley가 지적하고 있듯이 “Macbeth가 처음으로 마녀들을 만났을 때, 비록 그가 살인이란 생각을 미처 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그는 이미 희미한

야망의 의식을 품고 있었다”²¹⁾ Malcolm이 왕에 의해 Cumberland의 Prince로 봉해졌을때 Macbeth는 당황하며 한쪽 곁에서 왕권에 대한 그의 야망과 갈망을 다음과 같이 드러내 보인다:

That is a step
On which I must fall down, or else o'erleap,
For in my way it lies. Stars, hide your fires!
Let not light see my black and deep desires:
The eye wink at the hand; yet let that be,
Which the eye fears, When it is done, to see.
(I. iv. 48~53)

또한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Macbeth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I have learn'd by the perfect'st report, they have more in
them than mortal knowledge This have I thought good to
deliver thee(my dearest partner of greatness) that though
might'st not lose the dues of rejoicing, by being ignorant of
what greatness is promis 'd thee”(I. v. 1-13)

이 편지의 행간에서 알 수 있듯이 Lady Macbeth로 하여금 그들의 성에서 Duncan왕이 살해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Macbeth 자신임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악의 근원은 Macbeth의 왕권에 대한 검고 깊은 욕망이다. 그러므로 Macbeth는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21) Bradley(1974), *op. cit.*, p.413.

B. Macbeth의 비극적 근원

Macbeth에서 보여지는 선과 악의 본성을 연구해 볼 때, Shakespeare는 자유의지에 의해 선택된 결과에 대해 인간 스스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여긴 듯 하다. Macbeth의 선택에 대한 결과는 “fair”가 “foul”이 되고 “foul”이 “fair”가 되는 (I. i. 11) 惡의 힘의 세계이다. 극에 나타난 선과 악의 본성은 분명히 대조적인 표현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의 세계는 주로 마녀와 Macbeth 그리고 사악한 동물들의 이미지로 구현되고 있는 반면, 惡의 세계는 주로 Duncan왕과 Macduff 그리고 기독교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한 예로 Macbeth의 귀환 소식을 접하면서 Lady Macbeth는 주문을 외워 악을 불러낸다:

The raven
himself is hoarse,
That croaks the fatal entrance of Duncan
Under my battlements.
(I. v. 38~40)

반대로 Duncan왕은 “gracious”(III. i. 65), “meek”(I. vii. 17), “most sainted”(IV. iii. 109), “Lords’ anointed temples”(II. iii. 68)와 같은 Christian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

Macbeth가 선택한 마녀들의 세계에서는 선(fair)과 악(fair)이 섞여 있으며 혼돈 되어 있다. Macbeth의 비극은 바로 선과 악사이의 분별력을 상실한 데 있다. Robert Speaight는 Macbeth가 악이 행하는 바를 알고 있으며 그는 진실과 허위를 구분할 수 있다고²²⁾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

22) Robert Speaight(1955), *Nature in Shakespearean Tragedy*, Hollis & Carter, p. 48.

실이 아니다. 만일 Macbeth가 악의 본성을 확신한 데서 행동을 했다면 아무런 비극도 없었을 것이다. 물론 그가 Duncan왕을 죽이기 전에 Macbeth는 그러한 행위가 그의 파멸의 원인이 될 것임을 알고 있는 듯 하다:

But in these cases,
We still have judgement here: that we but teach
Bloody instructions, which, being taught, return
To plague th'inventor: this even-handed Justice
Commends th'ingredience of our poison'd chalice
To our own lips. He's here in double trust:
(I. vii. 7~12)

“현세의 심판(Judgement here)”이 이 시점에서 그를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이며 그의 나머지 생애동안 그를 괴롭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세의 심판에 대한 관심은 오직 타인들이 그에게 가할 지 모르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즉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외적인 보복인 것이지 그 자신의 내부에서 어떤 일이 생겨날까 하는 것이 아니다. 외적인 보복에 대한 그의 인식은 그를 전혀 구원해주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점점더 많은 살인을 하게 한다. 즉 살인행위를 거듭할 수록 Macbeth는 “I had else been perfect: / Whole as the marble, founded as the rock, / As broad and general as the casing air:” (III. iv. 21~23)라는 믿음속에서 더욱 심한 악의 행위를 계속하게 된다. Macbeth는 자신이 저지른 최악의 심판을 피하고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 또다른 최악을 저지르게 되고 그결과 그가 속한 온사회는 피로 물들게 된다. 지배적이고 강력한 악의 힘은 극을 통해서 “피(blood)”의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Kott는 “Macbeth에서의 피는 단순한 은유(metaphor)가 아니다. 그것은 실제로 살해된 육체에서 흐르는 진짜 피이다. 그것은 손과 얼굴에, 단검과 대검에 그 흔적을 남긴다”

라고 쓰고 있다.

극의 맨 처음 부분에서 우리가 보게되는 등장인물도 역시 피로 물든 사람이다. 즉 마녀들의 간단한 Prologue 다음의 장면은 “What bloody man is that?”(I. ii. 1)라는 Duncan왕의 대사로 시작된다. 이렇게 극의 첫머리에서 암시된 피의 이미지는 극 전체를 지배하게 되며 Duncan왕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이 피로 물들여지게 된다. 따라서 이 극에서 피의 이미지는 惡의 힘을 나타내 주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라고 하겠다.

악의 혼돈된 세계는 우리가 소위 ‘Porter Scene’이라고 부르는 장면에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다. Duncan왕이 살해된 직후의 그 장소를 생각해 볼 때 그 장면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장면은 Macbeth의 부도덕한 행위와 그가 받게 될 처벌과 관련되어 있다. Duncan왕을 살해함으로써 인간의 선한 세계가 물러가고 악마의 세계가 펼쳐졌으며 이제 Macbeth는 불안한 공포의 세계로 돌입하게 된다. Duncan왕을 살해한 직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살인에 몰입되었던 Macbeth의 의식을 깨우고, 암흑에 가리워져 있던 양심의 문을 두드리는 반작용의 역할을 한다. 여기에 술에 취하고 졸음이 덜 깬 Porter가 행하는 모호한 대사와 더불어 Macbeth의 성을 지옥으로 그리고 자신을 바로 지옥의 문지기로 비유함은 그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Here's a Knocking, indeed! If a man were Porter of Hell Gate, he should have old turning the key. — Here's a farmer, that hang'd himself on th'expectation of plenty: Come in, time-pleaser: have napkins enow about you: here you'll sweat for't. [Knocking] Knock, Knock. Who's there, i'th'other devil's name? — Faith, here's an equivocator,

23) Kott(1970), *op. cit.*, p.69.

that could swear in both the scales against either scale: who committed treason enough for God's sake, yet could not equivocate to heaven: O! Come in, equivocator. [Knocking] Knock, Knock, Knock. Who's there ? — Faith, here's an English tailor come hither for stealing out of a French hose: come in, tailor; here you may roast your goose.
(II. iii. 1~15)

Porter의 독백에 등장하는 이 세가지 유형의 상상속의 죄인들은 Tromly가 지적하는 바에 의하면 Macbeth의 여러가지 다양한 죄의 양상을 상징하고 있으며 그의 피할 수 없는 천벌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²⁴⁾

Macbeth의 도덕적 혼란은 또한 Macduff와 Porter가 술에 관해 나누는 대화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Macduff : What three things does drink especially provoke?
Porter : Marry, sir, nose-painting, sleep, and urine.
Lechery, Sir, it provokes, and unprovokes: it provokes the desire, but it takes away the performance. Therefore, much drink may be said to be an equivocator with lechery: it makes him, and it mars him: it sets him on, and it takes him off: it persuades him, and disheartens him: makes him stand to, and not stand to: in conclusion, equivocates him in a sleep, and, giving him the lie, leaves him. (II. iii. 26~35)

왕권에 대한 열망으로 도취되어 있는 Macbeth가 마녀들의 유혹이 지닌 도덕적 가치를 인식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지기에게 술은 마녀의 유혹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Macbeth와 문지기의 관계는 대조성이

24) Frederic B. Tromly(1975), "Macbeth and His Porter", *Shakespearean Tragedy*, Vol. xxvi, no.2(spring), p.152.

라기 보다는 유사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Macbeth가 자신이 저지른 비극적 상황에 대한 통찰을 하는 순간은 소위 'Banquet Scene'에서이다. 우리가 연회장면이라고 부르는 이 장면은 Duncan왕이 살해된 직후의 'Porter Scene'처럼 Banquo가 살해된 바로 뒤에 이어진다. 이 장면의 주된 내용은 오직 Macbeth에게만 보이는 Banquo의 환영의 등장이다. 범죄행위로 얼룩진 Macbeth의 여정이 여기에서 비극적 통찰의 순간과 더불어 전환점을 맞게 된다:

the time has been,
That, when the brains were out, the man would die,
And there and end: but now, they rise again,
With twenty mortal murthers on their crowns,
And push us from our stools. (Ⅲ. iv. 76~81)

그는 완전한 왕위를 위한 그의 여정의 한계를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그가 인식하게 되는 무질서의 세계에 대해 Macbeth는 아무런 통제를 가할 수가 없다.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매력적인 여정에서 비롯된 피로 얼룩진 악의 세계로 그는 너무 멀리 떠나와 버린 것이다. 이제는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의 목숨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는 피의 여행을 계속해야만 한다. 말하자면 Macbeth의 고뇌에 찬 다음의 독백에서 잘 나타나듯이 Macbeth는 피가 부르는 악의 세계로 지나치게 몰입되어 있는 것이다:

I am in blood
Stepp'd in so far, that, should I wade no more,
Returning were tedious as go o'er.
Strange things I have in head, that will to hand,
Which must be acted, ere they may be Scann'd.

(Ⅲ. iv. 135~139)

Duncan왕을 살해함으로써 왕위를 손에 쥔 Macbeth는 보다 완전하고 완벽한 왕권을 창출하려고 시도하나 그는 점점 더 無의 세계로 빠지게 된다. Duncan왕이 살해된 것을 발견하고난 후의 그의 대사에서 나타나듯이 Macbeth는 Duncan왕을 살해한 행위로부터 오직 無만이 생겨날 것임을 느끼고 있는 듯 하다.

Had I but died an hour before this chance,
I had liv'd a blessed time: for, from this instant,
There's nothing serious in mortality:
All is but toys: renown, and grace, is dead:
The wine of life is drawn, and the mere lees
Is left this vault to brag of. (Ⅱ. Ⅲ. 89-94)

이 말은 물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는 하나의 연기이나 연기를 넘어서버린 그의 내면의 세계를 반영하는 고통스러운 절규라고 볼 수도 있다.

'Banquet Scene'에서 Macbeth는 그 자신이 nothingness를 선택했음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된다. 無에 대한 그의 인식은 그의 아내의 죽음 직후에 이어지는 "Tomorrow and Tomorrow"라는 유명한 독백에서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Tomorrow, and tomorrow, and tomorrow,
Creeps in this petty pace from day to day
To the last syllable of recorded time:
And all our yesterdays have lighted fools
The way to dusty death. Out, Out, brief candle!
Life's but a walking shadow, a poor player

That struts and frets his hour upon the stage
And then is heard no more: it is a tale
Told by an idiot, full of sound and fury,
Signifying nothing. (V. v. 19~28)

Macbeth가 마침내 알게된 자신의 정체는 함께 존재할 수 없게 된 "Walking Shadow"이다. 즉 이제 그에게 남겨진 것 죽음뿐이다.

Lady Macbeth 역시 Macbeth와 마찬가지로 無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가운데 똑같은 dilemma에 직면한다. 마녀들의 예언과 관련된 남편의 편지를 받았을 때, 그녀는 Macbeth 자신이 불태우기를 꺼려하는 Macbeth 내부의 악의 불꽃을 자극시키려고 계획한다. 그녀는 성공에의 장애물이 외부적인 것에 있기 보다는 오히려 남편 자신의 내부에 있음을 감지한다:

Yet do I fear thy nature:
It is too full: o' th' milk of human kindness,
To catch the nearest way. Thou wouldst be great:
Art not without ambition, but without
The illness should attend it: (I. v. 16~20)

그녀는 그녀와 남편이 마녀의 예언을 실현시킴으로써 "ornament of life"라고 여기는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남편으로 하여금 Duncan 왕을 살해하고 왕권을 쟁취하도록 강권하기 시작한다. Macbeth가 살인을 감행하기를 꺼려하는 표현을 했을 때 Lady Macbeth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From this time
Such I account thy love. Art thou afeard
To be the same in thine own act and valour,
As thou art in desire? (I. vii. 38~41)

이처럼 Lady Macbeth는 Duncan왕의 살해 문제를 Macbeth의 남성적 태도와 연결시킴으로써 남편의 남성적 자존심을 자극하고자 한다. 싸움터에서의 자신의 용맹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는 Macbeth는 “I dare do all that may become a man ;/ Who dares do more, is none”(I .vī. 46~47)라고 응답하며 자신의 남성다움을 과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Lady Macbeth는 보다 강렬하게 sexual concept가 함축된 야유를 함으로써 남편의 대담성을 자극하려고 한다.

What beast was't then,
That made you break this enterprise to me?
When you durst do it, then you were a man;
And, to be more than what you were, you would
Be so much more the man. Nor time, nor place,
Did then adhere, and yet would make both:
They have made themselves, and that their fitness now
Does unmake you. (I .vī. 47~54)

이처럼 Lady Macbeth는 남편의 야망을 자극하는데 있어서 사랑, 욕망, 그리고 남성다움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녀의 유혹의 결과는 無이다. 그녀가 강조한 sexual energy는 아이를 갖고 있지 않은 그들 부부간의 성적 유대를 강화하는데 쓰이지 않고 살인이란 사악한 행위를 저지르는 촉진제로 쓰여진다. 상징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Duncan왕의 살해는 그들의 “love making”의 절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탄생시키는 것은 “삶의 장식”이 아니라 죽음의 세계이자 “great erotic defeat”²⁵⁾ 일 뿐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Macbeth의 비극의 근원은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나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악한 마녀의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의 자

25) Kott(1970), op. cit., p.72.

유의지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바로 Macbeth 자신은 물론 그의 가족, 그가 속한 사회, 나아가 국가 전체의 무질서와 비극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C. 사회와 역사의 무질서

Shakespeare가 이 劇에서 생각했던 도덕적 질서의 문제는 Macbeth부부의 몰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와 국가 전체의 무질서와 관련된다. 즉 Macbeth부부의 비극은 극의 처음 시작이 반역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일종의 mirror image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왕권에 대한 무질서의 문제는 첫장면에서부터 있었던 것으로 Macdonwald와 Cawdor 영주의 반역이 극의 초반에서부터 이미 일어났었다. Duncan왕에 대한 반역은 Macbeth에 의해 평정이 되나, 그 역시 왕을 살해함으로써 또다시 도덕적 질서의 붕괴를 초래한다. 왕위에 대한 질서는 극의 끝부분에서 善의 세력의 승리와 Malcolm의 등극으로 다시 회복되어진다. 그러나, 여기에서 극의 처음 부분과 똑같은 상황이 극의 끝부분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초반에는 반역의 세력에 의해 자비로운 왕이 위협받고 있는 장면이며 후반에는 찬탈자 즉 Macbeth가 정의로운 왕의 세력에 의해 위협받는 장면이다.

좀더 중요한 것은 도덕적 질서의 세계가 승리하는 것으로 결말이 남에도 불구하고, 반역과 살육이란 사건의 반복과 왕위에 대한 또 다른 쟁투가 암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Merciless Macdonwald” 처럼 Macbeth는 도덕적 질서의 힘에 의해 패배하며, 장대끝에 목이 매달린 채로 비극적 종말을 맞는다. 그리고 Duncan 왕

에 의해 Cumberland의 왕자로 봉해졌던 Malcolm이 새로운 왕이 된다. 그러나 그도 왕권을 유지해 나가기에 충분한 善의 소유자는 아닌 것이 Macduff를 시험해 보는 그의 다음 대사에서 잘 나타난다:

Nay, had I power, I should
Pour the sweet milk of concord into Hell,
Uproar the universal peace, confound
All unity on earth. (IV. iii. 97-99)

Scotland의 새로운 백작들에게 하는 Malcolm의 대사는 극의 시작에서의 Duncan왕의 대사를 연상케 한다. Duncan왕이 Macbeth에게 “I have begun to plant thee and will labor/ To make thee full of growing” (I. iv. 28~29)라고 말했던 것처럼 Malcolm은 그의 승리한 세력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My Thanes and Kinsmen,
Henceforth be Earls: the first that ever Scotland
In such an honour nam'd. What's more to do,
Which would be planted newly with the time ...
That calls upon us, by the grace of Grace,
We will perform in measure, time and place.
(V. ix. 28-39)

반란군을 진압한 데 대한 Duncan왕의 진실한 고마움과 보답의 이미지가 Macbeth를 패퇴시킨후 새로운 왕이된 Malcolm에 의해 반복된다는 것은 아울러 Duncan왕처럼 Malcolm도 새로운 위협을 받을 수 있음을 연상시켜 준다. 그리고 Banquo의 아들 Fleance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 또한 Banquo의 자손들이 왕이 될 것이라는 마녀들의 예언을 회상시켜 주고 있다. Macbeth가 자비로운 왕에 의해 말하여진 것에 귀기울였다가 국왕 시해를 생각했던 것

이라면, Fleance 역시 Malcolm의 딸에 귀기울였다가 그 자신이 왕이 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왕권의 무질서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은 왕위에 있어 다음 서열인 Donalbain의 부재에 의해서도 암시되고 있다. 나아가 극의 마지막 장면은 Malcolm의 왕위 복고가 단지 일시적인 것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Macbeth에서 Shakespeare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모든 역사는 그 역사를 반복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며, 그러한 경향성에 직면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진리는 Malcolm의 Macduff에게 행하는 다음의 대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Angels are bright still, though the brightest fell:
Though all things foul would wear the brows of grace,
Yet Grace must still look so. (IV. iii. 22-24)

즉 인간 역사의 진실은 “fair”가 “foul”이고 “foul”이 “fair”가 되는 세계에 있지 않고 fair와 foul이 구분되는 세계에 있다. Macbeth의 비극은 바로 이러한 진실을 알지 못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Macbeth에서 다루어지는 비극성은 다음의 성서 내용에 함유된 진리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하겠다.

Temptation arises when a man is enticed and lured away by his own lust: then lust conceives, and gives birth to sin: and sinful-grown breeds death. (James 1: 14~15)

Macbeth의 비극의 근원은 왕권에 대한 그의 욕망과 야망때문이다. 마녀의 유혹은 그의 내부적 욕망의 반영인 것이다. 그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그는 마녀들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선과 악이 혼돈되어 있는 곳에서 악의 세

계를 선택한다. 마침내는 그의 검은 욕망은 정의로운 왕을 살해하는 커다란 죄악을 낳고 만다. 일단 악의 세력이란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things bad begun make strong themselves by ill”(Ⅲ. ii. 55)라는 원칙하에 행동하게 된다.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결과로 그는 자신의 비참한 죽음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온 사회를 피의 역사로 물들게 한다:

It was through one man that sin entered the world, and through sin death, and thus, pervaded the whole human race, in as much as all men have sinned” (Romans 5:12)

Curry는 “Shakespeare의 세마너는 악령이라는 형이상학적 세계를 표현하고 상징화하기 위한 의도이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어둠의 힘과 맺어져 있는 인간 마녀로 여기든, 혹은 마녀의 형태를 빌린 진짜 악마든, 혹은 단지 구체화된 상징으로 여기든 그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상징하며 나타내는 힘은 궁극적으로 초자연적인 것이다”²⁶⁾ 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마녀들의 예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인간이 자신의 자유로운 자유 의지를 갖고 있는 한, 그곳에는 언제나 악령의 유혹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으며 그결과 인간사회와 역사의 도덕적 질서는 항상 붕괴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극의 마지막 장면은 이런 가능성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요컨대 인간 본성이 악에 대해 나약해질 수 있는 한, 인간역사의 무질서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

26) Curry (1968), *op. cit.*, p.72.

Ⅳ. 결 론

우주에 편재하는 질서의 이념을 믿는 Shakespeare는 이 세계속에서 인간의 반자연적이고 반질서적인 야심과 살인, 그리고 이들이 자아내는 영혼의 불안과 갈등 그리고 그에 연루된 공포와 허무를 시와 극을 통해 엮어보일 뿐만 아니라 이와같은 극적 상황속에서 아로새겨지는 상징적인 imagery를 통해서 질서의 심오한 철리를 제시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Macbeth가 참담한 생의 마지막에 다달았을 때, 인생의 무상을 읊은 애절한 독백 “Tomorrow, and to-morrow, and tomorrow. . .” (V. v. 19)는 삶과 세계의 모습과 질서에 관련된 Shakespeare의 이념을 명백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질서와 조화가 깨어진 이 세계속에서는 일체의 것이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고 만다. 이것은 허무한 세계이고 그 속의 인생은 무의미할 뿐이다. Macbeth는 신성한 질서의 상징인 Duncan왕을 찌르던 그 순간 자신의 잠을 죽였다는 것을 깨달지만 사실은 그 순간 이미 자신의 전부를 죽여 버리고 만 것이다.

Macbeth는 마녀들에게 자신의 영혼까지 팔아가면서 왕위찬탈의 야심을 충족시키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순간 자신을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던져 버렸던 것이다. 그래서 Macbeth가 체험한 반자연적이고 반질서적인 세계는 “Nought’s had, all’s spent, where our desire is got without content ” (Ⅲ. ii. 4~5)라는 Lady Macbeth의 말과도 같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공허한 세계였다.

Macbeth와 같은 개선 장군이 야심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은 공감되어질 수 있는 인간성의 한 단면일 수도 있다. 그러나 Shakespeare가 Macbeth에서 강조하고자 한 것은 별로 큰 흠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는 야심과 같은

인간성이 고귀한 인물의 내부에서 작용하고 행동으로 옮겨질때 얼마나 끔찍스러운 악의 세계를 만들며 인간과 사회의 역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지를 보여 주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Macbeth의 비극적 삶을 통하여 증오를 느끼기 보다는 동정을, 또한 쾌감을 느끼기 보다는 동정과 경외감을 느끼게 된다. 이는 Shakespeare가 악한이 되어버린 Macbeth를 통하여 보여주려고 한 인간과 역사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의 결과라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Macbeth가 보여주는 심각한 내면의 갈등과 투쟁을 통하여 인간본성의 심연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악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그의 멸망과정을 지켜보며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될 수 있는 사악한 세계의 진상이 얼마만큼 추악한 것인가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요컨대 Macbeth에서 다루어지는 비극적 본질은 선과 악이 혼용되어 내재되어 있는 인간 본성의 진실과, 항상 악한 세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나약성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악의 세계에 오염될 수 있는 한 인간의 비극은 운명적인 것이며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와 역사의 무질서와 비극도 반복되리라는 것이 Shakespeare가 Macbeth에서 보여 주려는 궁극적인 주제라고 하겠다.



Bibliography

Shakespeare, William.(1977), *Macbeth*, Methuen & Co. Ltd.

권의무(1984), "Shakespeare 비극과 시간 현상," 경북대학교 대학원.

남천희(1983), "Macbeth에 나타난 Duality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배명일(1982), "Macbeth에 관한 小考,"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이경식 옮김(1985), 『셰익스피어의 4대비극 연구』, 종로서적.

홍재황(1980), "Shakespeare 연극의 비극성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Adams, J.Q. ed(1931), *Macbeth*, Houghton Mifflin, p.136.

Boorman, S.C.(1987), *Human conflict in Shakespeare*, Routledge &
Kegan Paul Ltd.

Bradley, A.C.(1974), *Shakespearean Tragedy*, The Macmillan Press Ltd.

Campbell, L.B.(1963), "Shakespeare's Tragic Heroes," *Slaves of
Passions*, Barnes & Noble.

Curry, Walter Clyde(1968), *Shakespeare's Philosophical Patterns*,
Peter Smith.

Hazzlitt, William(1960), "The Round Table," *The Characters of
Shakespeare's Plays*, J.M. Dent & Sons Ltd.

Harris, L.L.& Scott, M.W. ed(1986), *Shakespearean Criticism*, Gale
Research Company.

- Knight, G.Wilson(1967), *Shakespeare and Religion*, Routledge
& Kegan Paul Ltd.
- _____.(1959), *The Wheel of Fire*, Methuen & Co. Ltd.
- Knights, L.C.(1963), *Explorations*, Chatto & Windus.
- Kott, Jan(1970), *Shakespeare our Contemporary*, Methuen & Co. Ltd.
- Milton, John(1962), *Paradise Lost*, The Odyssey Press.
- Muir, Kenneth ed(1977), *Macbeth*, Methuen & Co Ltd.,
introduction. XN.
- _____.(1972), *Shakespeare's Tragic Sequence*, Hutchinson Univ.
press.
- Schücking, L.L.(1959), *Character Problems in Shakespeares's plays*,
Peter Smith.
- Speaight, Robert(1955), *Nature in Shakespearian Tragedy*, Hollis
& Carter.
- Symons, Arthur(1971), *Studies in Elizabethan Drama*, AMS Press.
- Tromly, Frederic B.(1975), "Macbeth and His Porter," *Shakespearian
Tragedy*, Vol.xxvi, no.2 (Spring).

<Abstract>

The Tragic Vulnerability of Human Nature and History
in *Macbeth*

Cho, Man-Hee

English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Byun, Jong-Min

Of all Shakespeare's plays *Macbeth* is the most profound and mature vision of evil. It is obvious that *Macbeth* is a play about evil and damnation, considering the evil forces embodied mainly in Weird Sister, the Macbeths and images of blood and disorder. And the evil of *Macbeth* is viewed as opposed to human nature itself as well as to the harmonious order of the universe.

By what processes does *Macbeth* get involved in the world of evil forces? It seems that the disruption of *Macbeth*'s moral order originates from his willed choice of evil rather than from external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June, 1992.

forces. Of course, Macbeth's initiation into evil begins with the temptation of the witches. However, the important thing is his acceptance of the temptation. The Witches's prophesy is subject to interpretation. In other words, Macbeth is free to accept or reject their suggestions.

Another evidence of his free choice is that Macbeth is not alone in facing temptation from the Witches. His friend and fellow soldier Banquo is also told that although he shall not be king, he will be father to a line of kings. Both Macbeth and Banquo are thus tempted with the bait of Kingship, one for himself and the other for his children. Macbeth wavers and decides to catch the nearest way, whereas Banquo is undisturbed and decides to stand within the great hand of God.

Accordingly, Macbeth's black and deep desires for the kingship are the very root of the evil. Therefore, Macbeth should be responsible for his free choice. Exploring the nature of good and evil in *Macbeth*, it seems, Shakespeare grants human responsibility in the choices made by free will. And the question of moral order that Shakespeare has been considering in the play is not resolved with the defeat of the Macbeths, for that defeat may be only a mirror image of the rebellion with which the play has begun. What is more important is that despite the concluding victory of the forces on the side of moral order, the repetition of events and the circle of treachery and slaughter foreshadow another disruption of kingship. What Shakespeare shows us in *Macbeth* is the tendency of all history to repeat itself,

and the truth of human history is not the world where “fair” becomes “foul” and “foul” is “fair”, but the world where fair is distinguished from foul. Macbeth's tragedy results from his ignorance of the truth.

In conclusion, Macbeth's tragedy is associated with the Biblical truth: “Temptation arised when a man is enticed and lured away by his own lust; then lust conceives, and gives birth to sin; and sin ful-grown breeds death” . As a result of his full-grown sin, he has to breed his own death and the whole universe is stained with blood. Whether the prophesy of the Witches is true or false is not important. As long as man has free will, there is always a strong possibility to accept the temptation of evil spirits and to disrupt the moral order of human history. It seems that the final scene of the play should be interpreted in terms of this possibility. The disorder of human history will be repeated, as long as human nature is vulnerable to evil.

